

문학관 전시의 기호적 전략과 기억의 정치

이육사문학관을 중심으로

Semiotic Strategies and the Politics of Memory in Literary Museum Exhibitions: A Case Study of the Yi Yuksa Literary Museum

최병근*

국문요약 본 연구는 문학관 전시를 기호의 배치 전략, 대립 등을 통해 특정 작가와 문학작품에 대한 의미와 기억을 구성하는 구조적 장치로 보고, 이를 이육사문학관 전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토니 베넷의 전시복합체, 레비 스트로스의 이항대립, 아스만의 기억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아 살펴본 결과, 이육사문학관은 지역, 사상, 공간, 전시기법의 기호 대립항을 통해 '민족시인', '독립운동가' 이육사는 일련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지훈문학관과 운동주문학관 역시 지역의 대립항, 전시물의 대립항을 통해 특정한 기억과 의미를 재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문학관은 전시 기호의 배치와 대립을 통해 기억을 조직하고 특정한 정체성을 훈육하는 전시복합체의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문학관 연구의 중심 주제였던 운영, 정책 측면을 넘어 전시의 의미 생산 방식을 구조적·기호적으로 밝힘으로써 문학관 연구의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핵심어 이육사문학관, 기호, 기억, 이항대립, 지역, 정체성

- 차례**
1. 서론
 2. 이육사의 삶과 기념화 과정 검토
 3. 이육사문학관 전시 구조
 4. 전시 기호의 이항대립 구조와 의미 생성 과정
 5. 결론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문학관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학관 운영 현황이나 제도적인 문제 등 실천적, 행정적 관점에 집중되어 왔다. 특히 문학관은 사용자보다는 설립자를 위한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미비로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¹되는 등의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국립한국문학관-지역문학관' 연결망 구축,² 문학관의 문학관광 자원화 가능성³ 등 문학관의 개선 방안 모색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문학관 연구는 전국적으로 약 150여 개에 이르

1. 서론

본 논문은 문학관 전시를 단순한 시각적 재현, 혹은 정보 전달의 차원을 넘어 의미를 생성하는 기호적 구조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문학관이 작가와 작품에 대한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하고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

* 국립경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윤학로·김점석, 「프랑스 문학관의 설립배경과 발전과정」, 『프랑스문화예술연구』 14,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5, 1쪽.

2 채근병, 「문학관 협력망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문학관 협력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8(1), 한국문예창작학회, 2019, 3쪽.

3 전윤경, 「문학관광자원으로 본 문학관의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13, 건국대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18, 167쪽.

는 문학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다만, 많은 연구가 문학관의 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학관이 어떻게 의미를 형성하고 기억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기호적·담론적 분석은 다루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의 방향성은 문학관의 특성과도 맞닿아 있다. 박물관, 기념관 연구는 물질 유물, 오브제를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구조주의적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반면, 문학관은 대부분이 문헌, 필사본, 원고의 재현 자료이기 때문에 물질적 기호체계의 층위가 비교적 약한 측면이 있다.⁴ 또한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문학관이 활성화 되었는데 이는 지역과의 연계, 혹은 지역 활성화 전략 등 정책 연구와 연결되면서 구조 및 기호학적 분석의 흐름이 형성되기가 어려웠다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즉 문학관은 지역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작업들에 의해 배치되었으며, 지역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상징적 재구성,⁵ 지역경제 활성화의 도구⁶로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전시공간에 대한 비평적 관점으로서의 구조적, 기호학적 분석은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전시공간은 수많은 기호들의 선택과 배치, 혹은 결합과 배제를 통해 기억을 구성하고 재생성하는 능동적인 기호 장소이다. 대표적으로 토니 베넷(Tony Bennet)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감시와 규율 장치를 참고하여 박물관 전시와 제도를 통해 대중에게 문명화된 질서와 권력을 내면화시키는 훈육 장치로서의 전시복합체 개념을 제시한다. 전시복합체는 오브제의 학습, 공공전이에 있어 사물과 신체를 명령하고 배열하는 권력의 학습을 통해 민중을

개인적이기보다 전체로 다루고, 지식의 객체이기보다 주체가 되도록 하였다.⁷ 결국 전시복합체는 단순히 나열하여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의미를 생산하고 기억을 구성하는 기호체계의 장(場)이라는 것이다.

이 전시복합체의 구성은 기호의 대립, 그리고 기억과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구조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 Strauss)는 각 구성 요소들이 상호 간에 맺고 있는 대립관계에 주목하였으며, 이들 체계가 결합되어서 개인들이나 집단들 간에서 커뮤니케이션 언어나 일련의 과정을 형성시키는 것으로 보았다.⁸ 즉 대립되는 두 개념의 관계를 통해 구조화되고, 이항대립이 모든 문화의 기저에 깔려있는 보편적 구조로 본 것이다. 동시에 알레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은 모든 기억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도, 목적, 개입에 따라 그 기억이 선별되며, 선택과 망각을 통해 의미를 재생성한다고 보았다.⁹

즉 전시복합체라는 틀 안에서 이항대립이라는 구조가 작동하고, 그 결과 작가, 작품, 지역 등의 기억이 강조 혹은 망각되는 등 기억의 정치가 수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학관 전시가 어떻게 특정한 작가, 지역의 정체성을 선택적으로 강조하고 재구성하는지, 그리고 문학관 전시에서의 ‘기억의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으로는 안동시에 건립되어 있는 이육사문학관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설정의 이유로는, 이육사라는 인물이 단순한 문인에 그치지 않고 독립운동가, 민족주의자, 저항적 지식인 등 다양한 정치적·문화적 해석의 층위를 지닌 인물이라는 점에 있다. 그에 대한 전시가 무엇을 강조하고 어떤 기억을 선택적으로 구성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문학관이 수행하는 기억의 정치학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4 박물관이 역사성, 사실성을 기반으로 한 전시 구조라면, 문학관은 텍스트의 해석성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 동선, 유물(텍스트) 등 각 전시 기호들이 어떤 의미망을 형성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5 문재원, 「지역문학관의 재현과 로컬리티: 박경리문학관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6,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3, 32쪽.

6 김중우, 「김유정문학촌과 이효석문학관의 운영현황과 전망」, 『비교문학』 41, 한국비교문학회, 2007, 377쪽.

7 윤난지, 『전시의담론,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2』, 눈빛, 2007, 193쪽.

8 테렌스 호옥스, 오원교 역, 『구조주의와 기호학』, 신아사, 2013, 39쪽.

9 알레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2014, 62쪽.

또한, 본고의 연구 주제인 “문학관 전시의 기호적 전략과 기억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안동의 이육사는 다른 문학관들에 비해 역사·문화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분석적 가치가 높다. 이육사가 남긴 생애·문학·독립운동의 서사가 지역 정체성, 민족 기억, 문화유산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어, 전시가 어떤 기호 체계를 사용하여 의미를 배치하고 특정한 기억을 활성화 하는지를 검토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다시 말해, 이육사문학관은 전시의 기호적 전략이 실제로 어떤 기억을 중심에 두고,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과정이 어떤 정치적·문화적 함의를 갖는지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2. 이육사의 삶과 기념화 과정 검토

본 장에서는 3장의 기호학적 전시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육사의 삶과 사상의 형성, 그리고 기념화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3장 전시분석에서 각 전시 기호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의미화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

2.1. 이육사의 삶과 사상의 형성과정

이육사(본명 이원록)는 1904년 안동시 도산면 원촌리에서 태어났다. 이육사는 퇴계의 14대 손으로, 퇴계가 일구어낸 성리학의 영향을 받고 유년시절을 보냈다. 특히 육사가 나고 자란 안동이라는 지역은 오늘날 ‘양반의 고장’,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 불리는데, 이는 ‘동방의 주자’로 평가받던 퇴계의 영향¹⁰과도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육사는 성리학을 근간으로 하여 유년시절을 보냈다는 것

을 짐작¹¹할 수 있다.

이후 육사는 보문의숙(普文義塾), 백학학원에서 수학하였으며, 이는 민족의식과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보문의숙은 교남교육회, 대동청년단과 밀접한 관계¹²가 있는데, 교남교육회는 교육진흥을 통한 신교육운동을 목적으로 창립된 계몽운동 단체¹³였으며, 대동청년단 역시 경남 동래에서 조직된 항일 비밀결사¹⁴였다. 즉 보문의숙, 백학학원 수학으로 형성된 인적 교류는 이육사가 독립운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육사는 일본과 중국을 왕래하면서 사회주의 사상, 즉 아나키즘(Anarchism)을 수용하게 된다. 이육사는 1924년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되는데 일본 유학 시절 일본에서 형성된 아나키즘 단체인 흑우회에 가담하여 활동한다. 일본 유학 이후에는 중국을 오가며 항일 운동을 위해 아나키즘 항일 무장 독립 운동 단체로 알려져 있는 의열단 등에 가담하여 독립운동을 전개¹⁵하기도 했다. 이는 이육사가 아나키즘 독립운동가로서 항일 운동을 이어나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72년 대구에서 장진홍 의거에 얽혀 구속이 되고, 이후 대구에서 ‘대구격문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육사는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등 생애 동안 총 17번의 옥살이를 하게 된다. 그 후 중국으로 옮겨 가 김원봉이 선두로 있던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1기생으로 입교한다. 6개월 동

11 이육사의 산문 『은하수』에는 다음과 같은 유년 시절의 장면이 등장한다. ‘가령 말하자면 내 나이 7, 8세쯤 되었을 때 여름이 되면 낮으로 어느 날이나 오전 열 시 쯤이나 열 한 시 경엔 집안소년을 고성 낭독해도 풍속에 괴이할 바 없었고 밤이 이슬하고 깨끗하게 갠 날이면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불러 앉히고 별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이육사 사상의 성리학적 이념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논문, 181쪽.

12 이성우, 「1920년대 이육사의 국내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7,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147쪽.

13 위의 논문, 150쪽.

14 한국민족대백과사전, 대동청년단.

15 조동범, 「이육사의 사상적 실천 의지와 시적(詩的) 아나키」, 『비평문학』 87, 한국비평문학회, 2023, 391쪽.

10 홍기돈, 「이육사 시에 나타난 성리학 이념 고찰: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청포도』, 『광야』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49, 한국현대문학회, 2016, 181쪽.

안의 훈련을 통해 간부학교 졸업을 하지만 군사학교 출신이 드러나면서 다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이 된다. 이후 건강이 크게 나빠진 이육사는 문학 활동에 집중하며 『황혼』, 『절정』, 『광야』, 『청포도』 등 많은 시를 창작하고 발표한다. 1943년에는 중국에서 국내로 무기 반입 계획을 세우고 어머니와 형의 제사를 위해 입국하다 붙잡혀 베이징으로 압송된 후 1944년에 순국하게 된다.

이러한 이육사의 삶은 그의 사상 형성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유년시절에는 유교적 질서 속에서 유교적 사상, 독립운동의 정신 등을 습득하였으며, 이후에는 대구에서의 활동을 통해 식민지 현실에 맞서 민족의 해방, 일제에 대한 저항적 사상을 내면화해 갔다. 즉 이육사는 안동, 대구, 그리고 일본, 중국, 소련에서까지 자주 독립을 외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독립운동가로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육사에 대한 기념을 살펴보면 작가의 복합적인 사상적 면모들이 간소화되거나 생략되는 등 새로운 관점으로 이육사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김균탁은 이육사가 잦은 투옥과 일제에 의한 죽음을 통해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저항시인으로서 반공주의 체제 이데올로기에 적합한 시인으로 인식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이육사의 사회주의와 관련된 내용은 배제되었다고 본다.¹⁶ 또한 조동범은 이육사가 민족주의 문학인이자 독립운동가로 널리 알려졌으나, 그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아나키스트로서의 삶은 제대로 주목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한다.¹⁷

이러한 기억의 정치는 이육사의 기념화 과정에서도 드러나는데, 다음 절에서는 이육사의 사상이 어떻게 기호화되며 기념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2. 이육사의 기념화 과정

오늘날 이육사의 기념화 과정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육사 선생 기념비 건립위원회’에 의해 1968년 낙동강 강변에 세워진 이육사 시비(詩碑)는 안동댐 건설로 인해 수몰 위험을 겪자 안동민속박물관(현재 안동시립박물관)으로 이전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시비 앞면에는 이육사의 대표적인 시인 『광야』가, 뒷면에는 조지훈 시인이 이육사 시인을 추모하며 쓴 글이 새겨져 있다. 조지훈 시인은 시비의 마지막 부분에 ‘광야를 달리던 뜨거운 意志(의지)여 돌아와 祖國(조국)의 江山(강산)에 안기라’ 라며 육사에 대한 글을 새겼다.¹⁸

또한 이육사의 생가터로 알려져 있는 도산면 원천리에도 청포도 시비가 건립되어 있는데 이 시비는 ‘글로써 일제에 저항한 이육사 선생의 애국정신을 후세에 널리 알리고자 안동시와 이육사추모사업회가 청포도 시문을 비석으로 제작¹⁹하였고, 이후 2003년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로 지정²⁰되었다.

안동 외 포항 호미곶에도 이육사의 청포도 시비가 있다. ‘일제치하의 암울함 속에서도 꿋꿋한 정신으로 독립운동에 온 몸을 던진 이육사의 끈은 절개와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시비를 건립²¹하였다고 그 의도를 밝히기도 했다.

시비 외에도 전시공간으로서 안동의 ‘이육사문학관’과 대구의 ‘264작은문학관’, ‘이육사기념관’이 건립되기도 하였다.

안동의 이육사문학관은 이육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18 백소에 시민기자, 「광야를 노래하다 안동댐 ‘육사 시비」, 『경북매일』, 2024.05.07.

19 박동수 기자, 「이달의 우리지역 현충시설 ‘안동시 이육사 청포도 시비」, 『경상매일신문』, 2018.07.06.

20 독립운동 및 문화운동을 주제로 하여 ‘육사 이원록선생 시비’라는 비석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다. 관할지청은 경북북부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보서비스 참조.

21 이윤조 기자, 「포항 호미곶에 이육사 시비 건립」, 『연합뉴스』, 1999.11.24.

16 김균탁, 「이육사의 사회주의 체험과 공동체 지향 의식」, 『한국문학연구』 66,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21, 396쪽.

17 조동범, 앞의 논문, 387쪽.

2004년 7월 육사의 출생지인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에 개관된 전시공간이다. 안동에서는 1991년부터 이육사 연구회를 조직하여 안동지역 문인, 교사, 시민 등이 육사의 작품을 읽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 이육사기념사업회를 창립하면서 본격적인 이육사를 기리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1995년 한국문인협회는 이육사에 나타난 광복문학과 독립정신을 주제로 ‘이육사 선생 추모 문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이육사기념사업회는 시인 육필전, 기념세미나, 육사백일장 등 매년 각종 행사를 통해 지역문인 이육사를 기리는 작업을 진행해왔다.²² 이후 기념사업회는 이육사 추모사업회로 전환하고 2008년에 완공된 이육사문학관 민간위탁 운영을 시작하면서 육사의 독립운동과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작업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²³

대구의 ‘264작은문학관’은 민족시인 이육사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건립²⁴되었으며, 20년간 육사 연구에 매진해 온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박현수 교수가 1억여 원의 사비를 들여 설립하였다. 또한 대구의 이육사기념관은 2023년 11월에 개관하였으며, 이육사 고택이 공동주택 사업부지 편입으로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촉발된 유족과 언론, 시민단체의 염원을 바탕으로 건립되었다. 대구광역시 조경선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에 대해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 선생께서 우리 대구의 삶을 통해 뜨거운 민족정신을 키웠듯이, 시민들의 염원으로 개관하는 이육사 기념관이 대구에서 이육사 정신을 재조명하고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²⁵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육사를 기리고자 하는 다양한 행사들도 개최된다. 이육사문학제를 한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청포도 사생대회, 육사선생 순

국 추념식, 이육사문학학교, 이육사포럼 등 많은 행사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이처럼 이육사의 다양한 기념화 양상은 이육사라는 인물에 대한 사회적인 기억이 어떠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육사를 ‘저항시인’, ‘독립운동가’, ‘민족정신의 상징’으로 호출하고 있는 기억의 양상은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의 개입이 기념을 통해 제도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제도화된 서사가 문학관 전시에서도 기호와 서사로 재구성되는 것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문학관 전시는 기념화 과정에서 형성된 기억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재구성하는 대표적인 매개체로서, 특정한 의미 구조가 전시 기호로서 재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안동의 이육사문학관을 중심으로 하여 문학관 전시 내 기호들이 어떻게 호출되고 배치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립항을 통해 의미를 재생성하는지 그 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3. 이육사문학관 전시 구조

이육사문학관은 2004년 7월, 안동에 건립된 경상북도 제1호 공립문학관이다. 민족시인 이육사 선생을 기리기 위해 이육사의 고향마을인 도산면 원천리 생가터 옆에 문학관을 세웠으며, 이육사 시인의 삶과 활동, 작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이육사문학관 누리집에서는 ‘이육사문학관은 이육사의 민족정신과 문학정신을 길이 전하고 널리 알리는 공간이다. 일제 강점기에 17번이나 옥살이를 하며 민족의 슬픔과 조국 광복의 염원을 노래한 항일 민족시인 이육사 선생의 흩어져 있는 자료와 기록을 한 곳에 모았다.’라고 문학관 건립과 운영의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²² 은평시민신문 정민구, 「안동은 ‘이육사 시인’을 어떻게 기리고 있다.」, 『오마이뉴스』, 2022.07.19.

²³ 위의 기사.

²⁴ 최일영 기자, 「민족시인 이육사 선생 뜻 기리는 ‘264 작은문학관’ 대구에 개관.」, 『국민일보』, 2016.05.09.

²⁵ 김영식 기자, 「대구시, ‘민족시인’ 이육사의 생생한 삶 기린다...기념관 개관.」, 『경상매일신문』, 2023.11.15.

이육사문학관의 구조는 크게 다음 표로 제시할 수 있다.

〈표 1〉 이육사문학관 전시 구성

구분	공간구성	전시구성	전시물	전시기법
3층	다목적홀, 세미나실, 강의실	-	-	-
2층 (출입구)	전시실	이육사의 생애 (출생-성장-활동)	사진, 텍스트	모션 인식
1층	전시실	이육사의 생애 (활동-작품-순국)	사진, 텍스트, 육필원고	청각 전시(음성), 체험 전시(체험관)

전시구성을 보면 2층에 출입구가 있으며,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전시가 진행된다. 3층은 문학관 자체에서 행사 진행을 하거나, 혹은 개인 및 단체가 대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목적홀,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층 전시실은 ‘민족시인 이육사’라는 텍스트로 관람객을 맞이하며, ‘이육사의 발자취’ 전시가 시작된다. 이는 이육사의 연령을 기준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어 작가의 생애를 시기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제시되는 전시는 바로 이육사의 출생, 성장과 관련된 ‘안동’, 그리고 ‘원촌마을’에 대한 내용이다. 원촌마을은 ‘진성 이씨 가문이 퇴계가 남긴 정신적 유산을 정체성으로 삼아 마을의 규범을 만들었고, 이를 충실하게 지킨 참된 정신과 역사가 흐르는 곳이다’로 제시되며, 안동은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은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중심지요,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를 대표하는 곳이다. 이육사에게 안동은 선비의 올곧은 뜻과 삶의 틀이 갖추어진 이상적인 곳’으로 재현된다. 그리고 이육사는 ‘안동’이라는 지역과 긴밀히 연결되는데, ‘이육사는 퇴계의 후손으로 안동에서 나고 자랐다. 퇴계의 선비정신은 그의 성품과 학문적 분위기, 한학적 소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이육사의 사상과 문학 작품 형성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전시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이육사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정서’ 전시를 통해

정체성을 표면적으로 드러낸다. ‘이육사는 일제강점기를 살면서 나라의 겨레의 해방을 이루려고 독립운동에 뛰어 들어 목숨을 바친 투사요, 지사였다. (중략) 이러한 그의 정서는 작품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가 쓴 대부분의 시는 시대 상황의 열악함, 이에 맞서는 한 인간의 내면 갈등, 그리고 이를 이겨내려는 강한 뜻을 노래하고 있다’라며 그의 문학세계를 ‘저항시’로 풀어내고 있다.

이육사의 출생과 성장의 전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의 전선에 뛰어드는 이육사의 모습이 ‘대구’라는 지역을 통해 형성된다. 본 전시에서는 ‘이육사의 외국 유학’을 통해 일본과 중국에 유학했으며, 대구 조양회관에서 활동, 조선은행대구지점이 폭파되는 장진홍 의거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된다. 이에 이육사가 수감되고 이육사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수감번호 264번’ 이 텍스트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후의 전시는 전시실 1층으로 이어진다.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된 대구격문투쟁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고,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1기생으로 입교하여 훈련받는 이육사의 모습이 입체적으로 재현된다. 이육사 작품 전시는 전시에 지속적으로 제시되나, 1층 전시실에서 최종적으로 종합되어 제시된다. 시기별 이육사의 작품명을 텍스트로 제시하고 있는데, 평문, 수필, 소설, 시 등 다양한 장르에서 그의 작품이 창작되었음을 전달한다. 그 외에도 ‘시와 시대를 공감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육사와 관련이 있는 정인보, 신석초, 이병각, 노신(루원), 서지마 등의 인물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고, 이후 ‘베이징 감옥에서 순국하다’ 전시에서 이육사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내용을 다룬다.

이육사문학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1층에 기획되어 있는 ‘감옥체험실’이다. 감옥체험실은 이육사 순국 전시를 끝으로 좁은 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공간으로, 이육사가 실제 간혀있었던 감옥과 당시 고문으로 사용되었던 도구를 재현하였다. 이 공간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감옥 안에



① [2층] 이육사 생애



② [2층] 이육사와 안동



③ [2층] 대구에서의 활동



④ [1층] 이육사 문학 작품



⑤ [1층] 감옥체험실



⑥ [1층] 육필원고 전시

〈사진 1〉 이육사문학관 전시 동선

들어가보거나 고문도구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등 체험적 전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감옥체험실을 나오면, 이육사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 공간에서는 이육사의 안경, 이육사의 사진, 육사의 부인인 안일양 여사 사진, 이육사의 인장과 사진, 서대문형무소 신원카드 등 이육사와 관련된 사진, 문서, 육필원고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육사문학관의 동선은 〈사진 1〉과 같이 크게 6개의 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육사의 출생부터 순국까지 시기순으로 전시를 구조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문학관 전시 분석은 이육사문학관의 전시가 어떤 기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호들이 전시공간 안에서 어떻게 선택되고, 배치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전시 기호의 배치는 단순한 전시 기획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특정한 의미 체계를 전제하고 그 의미를 관

람객에게 자연스럽게 내면화시키는 기호적 전략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전시 기호들이 어떻게 대립항을 구성하며, 그 대립항을 통해 어떤 기억과 정체성을 구축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전시 기호의 이항대립 구조와 의미 생성 과정

앞선 3장은 이육사문학관 전시가 어떤 기호들이 선택 및 배치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표면적 구조를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전시 기호의 표면적 배열만으로는 전시가 드러내고자 하는 내적 의미를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전시 기호는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대립항을 이루며 하나의 의미망을 구성하기 때문에 전시 기호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 구조를 해석하는 작업은 전시 공간의 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전시 기호들의 구성과 배치, 동선을 토대로 하여 그 기호들이 어떤 대립항을 형성하며 어떠한 의미 작용을 수행하는지 기호학적으로

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이육사문학관 전시가 이육사라는 인물, 그리고 지역문학관으로서 안동이라는 지역적 정체성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1. 지역 기호의 대립: ‘안동’과 ‘대구’

이육사의 출생에서는 ‘유림문학과 이육사문학’, 그리고 ‘안동의 유교정신과 이육사’ 설명을 통해 안동이라는 지역이 이육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잘 알 수 있다. 특히 이육사를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를 대표하는 곳’과 연결하면서 ‘이육사에게 안동은 선비의 울골은 뜻과 삶의 틀이 갖추어진 이상적인 곳’으로 정의한다. 즉 이육사문학관이 ‘안동과 유교문화’라는 로컬, 로컬리티와 연결되는 대목으로, 안동이라는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여 항일과 민족정신이라는 지역의 기억을 문학관이라는 공간적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

반면, 이육사의 출생과 성장과정이 ‘안동’ 중심이었다면 독립운동 활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대구’라는 지역으로 전환된다. 이육사문학관에서 대구는 ‘조양회관 활동’, ‘대구격문투쟁’, ‘장진홍 의거’, ‘수감번호 264, 이원록’으로, 독립운동의 거점으로서 대구라는 지역이 호출된다.

여기서 ‘안동’과 ‘대구’는 대립항으로서 나타나는데, <사진 2>에서 안동은 이육사의 출생과 관련하여 정신문화의 수도, 퇴계의 후손, 선비정신 등의 기호로서 재현된다면, 대구는 이육사의 독립운동 배경지로만 제시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대구는 이육사가 수감됨과 동시에 향후 이육사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264’라는 필명을 사용하게 된 시작점이며, 독립운동의 시작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족, 항일에 대한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공간으로서 상징성이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대구’와 이육사의 연결은 ‘어린시절의 교육’이라는 전시를 통해 ‘대구로 집을 옮긴 이육사는 그곳에서 서화가로 이름 높던 석재 서병오에게 그림을 배웠다.’로만 전시된다.



<사진 2> 이육사의 ‘안동’(좌)과 ‘대구’(우)의 제시

즉 이육사문학관에서의 ‘안동’이라는 기호는 이육사의 유교적 정체성, 독립운동가로서의 정신, 민족시인으로서 호출되는 공간인 반면, ‘대구’라는 기호는 독립운동의 배경적 요소로만 제시되며, 상대적으로 약화된 형태로 전시에서 재현된다. 이를 통해 이육사문학관이 안동에 건립될 수 있었던 당위성을 확보하게 됨과 동시에 이육사는 안동을 기반으로 한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시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4.2. 사상 기호의 대립: ‘민족주의’와 ‘아나키즘’

이육사의 활동 공간에 대한 기호는 안동, 대구 외에도 대외적으로 ‘중국’, ‘일본’이 제시되는데, 중국은 조선혁명간부학교의 입교와 연결되며, 일본의 경우 일본 유학 시절 아나키즘 단체로 알려져 있는 흑우회에 가입하여 활동한 내용과 연결될 수 있다. 실제 문학관 전시에서 중국과 일본에서의 활동은 ‘이육사의 발자취’, ‘이육사의 독립운동 경로’를 통해 서술되는데, 이육사의 아나키즘 사상은 일본과 중국에서의 활동에서 큰 영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사상적 토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 3>에서 볼 수 있듯, 이육사의 출생과 성장 전시에서 이육사는 일제강점기에 나라와 겨레의 해방을 이루기 위해 ‘독립운동에 뛰어든 투사’로 호출하고, 민족주의적 사상을 기조로 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전시 전반에 드러내고 있다. 반면, 이육사의 중국, 일본으로의 왕래에 대



(사진 3) 이육사의 독립운동 경로(좌)와 민족주의 설명(우) 사진

한 내용은 제시되고는 있으나, 일본에서의 활동이 세부적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육사의 사상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였던 아나키즘의 수용과 활동은 배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육사의 사상에서 아나키즘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배제함으로써 ‘민족주의적 이육사’를 더욱 강화하는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민족주의의 기호는 설명 텍스트, 사진 등을 통해 전시에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아나키즘은 부재로 인해 배제된 기억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민족주의’와 ‘아나키즘’이 단순 대립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담론으로서 선택과 배제의 과정, 그리고 기호의 ‘드러냄’과 ‘부재’의 대립항으로까지 나아가며 이육사가 민족주의자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공간 기호의 대립: ‘2층’과 ‘1층’

이육사문학관은 전시 동선이 2층으로부터 시작해, 1층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 역시도 이육사를 독립운동가로서의 모습으로 호출하고 있는 대립항으로 살펴볼 수 있다.

2층에서는 이육사의 출생, 안동이라는 지역, 유교적 사상 토대, 철창 등을 활용한 대구에서의 독립운동 활동 등의 사건을 시기별로 제시된다. 이어 1층에서는 독립운동 활동으로 인한 잦은 투옥, 순국, 감옥체험실의 기호들이

배열되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서대문형무소 신원카드, 이육사 안경 등 이육사의 유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육사는 잦은 투옥과 고문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이육사는 문학 활동에 집중하여 『절정』, 『광야』와 같은 작품을 썼다고 하였는데, 실제 문학관에서는 이육사의 문학 활동 작품 전시를 1층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1층은 이육사의 고난과 역경을 전시 기호로 재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2층에서는 ‘출생’, ‘독립운동 활동’이라는 기호가 전시되고, 1층은 ‘투옥’, ‘순국’, ‘기억’의 기호가 전시되는데, 이는 유교적 정신을 기반으로 한 독립운동 정신(2층)과 일제의 폭력으로 인한 고난과 현실(1층)이라는 상징적 대비를 드러내고 있다. 1층의 간부학교 입교, 창작 작품 전시, 고문체험실, 유품의 기호는 식민지 폭력으로 인해 이육사의 ‘독립운동 정신’이 점차 ‘고난의 서사’로 전이되는 과정을 공간의 구조로 재현한 의도적 기호 대립이라 할 수 있다.



(사진 4) 이육사문학관의 1층과 2층 공간 구조

위의 공간 대립은 이육사문학관이 단순히 작가의 생애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관람객이 ‘민족주의자’ 혹은 ‘독립운동가’로서의 이육사를 내면화하게 만드는 기억의 장치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4.4. 전시기법 기호의 대립

: ‘해석적’ 텍스트와 ‘몰입형’ 텍스트

이육사문학관에서는 다양한 전시 기법이 활용된다. 2층에서는 텍스트 및 사진을 활용한 전시를 주를 이루고, 1층에서는 문을 열어 문학작품을 읽거나, ‘비밀임무의 수행’ 전시에서는 김원봉이 이육사에게 내린 독립운동 지령을 관람객이 수화기를 들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각 활용 전시도 진행된다. 또한 감옥체험실을 구축하여 관람객이 직접 감옥 안에 들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사진 5) 해석 텍스트의 2층(좌)과 몰입형 텍스트의 1층(우) 사진

2층과 1층의 전시기법은 단순히 전시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전시가 어떻게 이육사의 기억을 구성하고 있는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2층의 전시는 안동이라는 지역과 이육사라는 인물을 텍스트를 중심으로 제시하며 지역과 인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1층은 인터랙티브 전시, 음성 전시, 감옥 체험 등 관람객이 직접 전시와 소통한다는 점에서 이육사가 되어보는 관점으로 제시된다. 즉 2층의 텍스트 중심의 전시는 지역과 인물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이육사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 1층의 몰입형 전시는 인터랙티브, 체험적 기호를 통해 이육사를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육사문학관은 해석적 기억과 체험적 기억이라는 서로 다른 기호 배치 전략을 통해 층위별로 조직하는

하나의 전시복합체로서 이해 가능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육사문학관의 전시 분석은 아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2〉 이육사문학관의 대립항과 의미

구분	대립기호	의미 효과
지역기호의 대립	안동 / 대구	· ‘이육사=안동’이라는 서사적 맥락 형성 · ‘대구’ 기호는 약화되며, 안동의 지역성 강화
사상기호의 대립	민족주의, 항일 / 아나키즘, 사회주의	· ‘민족시인’, ‘독립운동가’로서 이육사 호출 · 그 외 사상적 스펙트럼 배제, 민족성 강화
공간기호의 대립	2층(생애, 성장, 독립운동) / 1층(투옥, 쇠약, 순국, 고문)	· 출생, 성장, 활동의 이미지(2층)에서 투옥, 쇠약, 순국, 고문(1층)의 서사로 전환 · 항일, 저항, 민족담론 강화, 시인으로서의 기억 약화
전시기법기호의 대립	해석적 텍스트 / 몰입형 텍스트	· 안동이라는 지역과 이육사의 정체성 해석 · 이육사의 서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

이상의 분석을 정리해보면, 이육사문학관은 지역, 사상, 공간, 전시기법이라는 네 측면의 기호적 대립을 전시에서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족시인 이육사’, ‘독립운동가 이육사’, ‘이육사와 안동’이라는 특정한 기억과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육사문학관 전시의 ‘안동/대구’, ‘민족주의/아나키즘’, ‘2층/1층’, ‘해석/몰입’으로 나타나는 이항대립 구조는 단순히 시기별 나열, 순차적 배치라기보다는 기호의 선택과 배제, 그리고 대립항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생산해내는 구조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기호적 대립은 이육사를 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 호출하고자 하는 이육사문학관의 기억의 정치이며, 이는 관람객을 특정한 해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내면화시키는 전시복합체라는 것을 시사한다. 즉 문학관은 중립적으로, 모든 정보를 동일하게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호들의 배열과 대립을 통해 특정한 질서와 기억을 재현하고 훈육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구조는 단연 이육사문학관만의 특수성으로 결론지을 수는 없다.

가령, 이육사와 동시대 인물로 알려져 있는 조지훈은 경북 영양에서 나고 자랐지만, 문단 활동, 혹은 교수로서

의 활동은 서울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다. 그러나 영양군 일월면에 건립되어 있는 지훈문학관의 전시에서는 ‘자연과 더불어 동서양의 문화를 경험한 주실마을에서의 어린시절은 이후 지훈의 삶과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며, 서울이라는 지역보다 그가 나고 자랐던 영양과 두들마을이 부각되어 전시에 드러난다. 이는 지역 기호의 대립을 통해 영양과 주실마을이라는 지역성과 지훈문학관을 연결지으며 설립 당위성을 강화 및 조지훈 시인의 정체성 형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역성을 강화하는 대립 전략이 있다면, 작가의 서사를 더욱 강조하는 기호의 대립 전략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에 건립되어 있는 윤동주문학관은 ‘열린 우물’, ‘단힌 우물’의 대립항을 통해 의미를 드러낸다. 지붕이 뚫려있는 열린 우물은 개방, 하늘의 이미지를 통해 윤동주의 자유와 자연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면, 단힌 우물은 철문과 연결되면서 철저한 어둠 속 빈 공간에 갇혀 윤동주가 수감되었던 후쿠오카 감옥을 떠올리게 한다²⁶는 점에서 폭력, 고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윤동주문학관은 우물이라는 전시 기호의 대립을 통해 시인이 지니고 있던 일체의 억압과 이에 대한 저항,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학관 전시는 작가의 기억과 흔적을 중립적으로 제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호의 선택과 배치, 그리고 대립을 통해 특정한 기억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전시복합체로 이해될 수 있다. 이육사문학관이 지역, 사상, 공간, 전시 기법 기호의 대립을 통해 ‘독립운동가’라는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면, 지훈문학관은 영양이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윤동주문학관은 전시 공간 기호의 대립을 통해 시인의 저항과 고난의 서사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작가, 작품이 각 문학관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선택되고 조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교 사례는 개별 문학관의 특수성을 나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학관 전시에 공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기호의 의미 생산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보조적 분석 자료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서로 다른 문학관들이 각기 다른 목적과 의도를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호의 대립 구조를 통해 의미를 생산하고 기억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문학관은 단순 전시물 나열, 정보 전달의 공간이 아니라, 전시 기호의 배치와 대립을 통해 특정한 정체성과 기억을 구성하고 전달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문학관을 단순히 작가와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호의 선택과 배치, 그리고 대립을 통해 의미와 기억을 생산하는 구조적인 장치로서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문학관 전시 분석을 위한 기반으로 토니 베넷의 전시복합체 개념, 그리고 레비스트로스의 이항대립을 활용하여 이육사문학관의 전시 기호의 배치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육사문학관 전시는 지역의 대립으로 ‘안동과 대구’, 사상의 대립으로 ‘민족주의와 아나키즘’, 공간의 대립으로 ‘2층과 1층’, 그리고 전시 기법의 대립의 ‘해석과 몰입’으로, ‘안동이라는 지역성’, ‘민족주의와 독립운동가로서 이육사’, ‘항일, 민족의 아이콘으로서의 이육사’라는 특정한 기억과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억과 의미 구성은 관람객에게 특정한 기억과 해석을 내면화시키는 훈육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이육사문학관은 전시복합체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육사문학관 외에도 지훈문학관과 윤동주문학관 역시 ‘영양, 서울’이라는 지역 기호의 대립, 그리고 ‘열

26 김명석, 「문학 공간과 서사 체험: ‘윤동주문학관’, ‘구보따라 걷기’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22, 구보학회, 2019, 712쪽.

린 우물과 닫힌 우물'의 전시 기호의 대립을 통해 작가에 지역 혹은 작가에 대한 특정한 기억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 분석 결과는 각 문학관마다의 운영 방향성, 목적, 정체성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미와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기호적 대립 구조를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문학관을 단순한 작가, 작품의 나열 공간이 아니라, 기호의 선택과 배제. 그리고 대립과 전시 물의 배치 등을 통해 의미와 기억을 재구성하는 전시복합체로서 분석했다는 데 있다. 이는 문학관 전시가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특정한 가치와 해석을 내면화하는 기억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장치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문학관은 전시 기호의 배치와 대립을 통해 기억을 조직하고 특정한 정체성을 혼용하는 전시복합체로 이해될 수 있다. 전시복합체로서 문학관은 작가와 문학작품에 대한 복잡하고 다층적인 부분을 모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혹은 국가의 개입에 따라 특정한 기억을 생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층적인 시각에서 비평적으로 연구되어야 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다만, 본 연구는 전시의 의미 생산 구조를 살펴보았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육사문학관과 일부 문학관의 전시 분석을 사례로 보았다는 점은 분명 한계가 있다고 본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문학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확장하고, 문학관 전시가 기억과 의미를 재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보다 더 폭넓은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논의를 통해 문학관 연구는 운영과 정책 중심의 기존 논의를 넘어, 전시의 의미 생산 구조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2014.
윤난지, 『전시의답론,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2』, 눈빛, 2007.
테렌스 호옥스, 오원교 역, 『구조주의와 기호학』, 신아사, 2013.

2. 단행본 및 논문

- 김균탁, 「이육사의 사회주의 체험과 공동체 지향 의식」, 『한국문학연구』 66,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21.
김명석, 「문학 공간과 서사 체험: '운동주문학관', '구보 따라 걷기'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22, 구보학회, 2019.
김종우, 「김유정문학촌과 이효석문학관의 운영현황과 전망」, 『비교문학』 41, 한국비교문학학회, 2007.
문재원, 「지역문학관의 재현과 로컬리티: 박경리문학관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6, 강원대인문과학연구소, 2013.
윤학로·김점석, 「프랑스 문학관의 설립배경과 발전과정」, 『프랑스문화예술연구』 14,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5.
이성우, 「1920년대 이육사의 국내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7,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전윤경, 「문학관광자원으로 본 문학관의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13, 건국대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18.
조동범, 「이육사의 사상적 실천 의지와 시적(詩的) 아니키」, 『비평문학』 87, 한국비평문학학회, 2023.
채근병, 「문학관 협력망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문학관 협력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8(1), 한국문예창작학회, 2019.
홍기돈, 「이육사 시에 나타난 성리학 이념 고찰: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청포도』, 『광야』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49, 한국현대문학학회, 2016.

3. 기타 자료

- 김영식 기자, 「대구시, '민족시인' 이육사의 생생한 삶 기린다...기념관 개관」, 『경상매일신문』, 2023.11.15.
박동수 기자, 「이달의 우리지역 현충시설 '안동시 이육사 청포도 시비」, 『경상매일신문』, 2018.07.06.
백소애 시민기자, 「광야를 노래하다 안동댐 '육사시비」, 『경북매일』, 2024.05.07.
은평시민신문 정민구, 「안동은 '이육사 시인'을 어떻게 기리고 있나」, 『오마이뉴스』, 2022.07.19.
이윤조 기자, 「포항 호미곶에 이육사시비 건립」, 『연합뉴스』, 1999.11.24.
최일영 기자, 「민족시인이육사선생뜻기리는 '264 작은문학관' 대구에 개관」, 『국민일보』, 2016.05.09.
한국민족대백과사전, 대동청년단.

Abstract**Semiotic Strategies and the Politics of Memory in
Literary Museum Exhibitions**

A Case Study of the Yi Yuksa Literary Museum

Choi, Byeong-Geun | Gyeo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views literary museums as structural devices that construct meanings and collective memories of specific authors and literary works through the strategic arrangement and opposition of exhibition signs. Focusing on the Yi Yuksa Literary Museum, it analyzes this mechanism using Tony Bennett's concept of the exhibitionary complex, Lévi-Strauss's binary oppositions, and Assmann's theory of cultural memory. The findings show that the museum foregrounds the identity of Yi Yuksa as a "national poet" and "independence activist" through oppositional sign systems grounded in locality, ideology, spatial composition, and exhibition techniques. A similar pattern is observed in the Jihoon Literary Museum and the Yun Dong-ju Literary Museum, both of which reproduce particular memories and meanings through the oppositions embedded in regional context and exhibited materials. In this sense, literary museums operate as exhibitionary complexes that organize memory and discipline specific identities through the arrangement and interplay of exhibition signs.

Accordingly, this study moves beyond the traditional focus on management and policy in literary-museum research, and instead proposes a new structural and semiotic analytical framework by elucidating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exhibitions generate meaning.

Keywords Yi Yuksa Literary Museum, signs, memory, binary oppositions, locality, identity
